

Section II

정책논단

소득-소비분배구조 변화의 정책적 함의⁽¹⁾

표 학 길

1. 머리말

2007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 불황구조 속의 한국경제는 불황탈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이 주도한 양적금융완화정책은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불황 가운데에서 한국경제의 침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불황의 양태가 ‘경기순환적 불황(cyclical recession)’이 아니고 ‘구조적 불황(structural recession)’이며 대내외적으로 정치·안보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복합불황(combined political-economic recession)’의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현재의 불황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구조조정이나 양적완화정책을 뛰어넘는 구조적이고 정치경제적인 성장잠재력 회복정책이 필요하다.

2. 전 세계적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최근 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적 소득분배구조가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악화 일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소득분배구조가 양극화됨에 따라 중

(1) 이 글은 Pyo(2017, forthcoming)에서 개관한 전세계적 소득-소비분배구조 변화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통계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자료의 수집 및 정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이다인 연구조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산층이 몰락하고 그 결과 경기부양대책이 중산층 중심의 유효수요로 연결되지 못하여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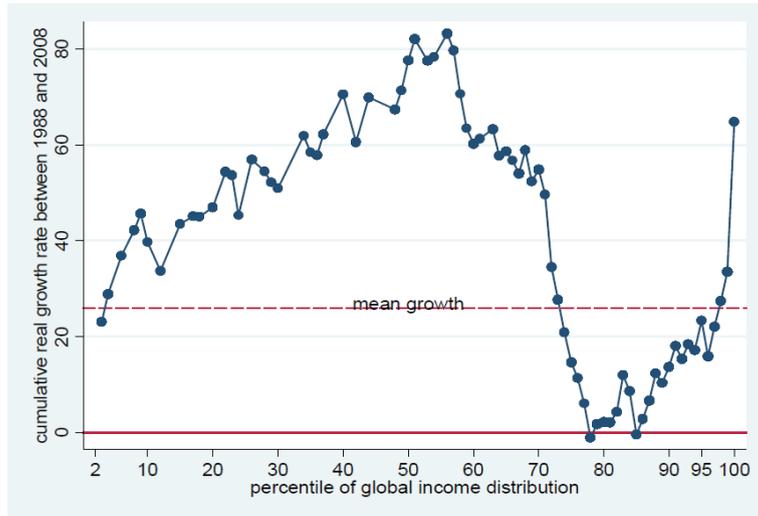
대표적인 연구로 Piketty(2014)가 있으며 그는 미국의 최상위 10%가 전체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0~1980년의 기간 중 약 35% 미만에 머물렀으나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45~50%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럽 역시 1970년대에는 3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35%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자본소득비율의 상승을 추계하는 대신 노동소득비율을 추계한 실증연구들도 있다. Onaran and Galanis(2013)에 의하면 1960~2007년의 기간 동안 주요 각국의 노동소득비율은 미국(-10%), 일본(-20%), 유로지역(-10%), 중국(-8%), 인도(-20%), 터키(-30%) 및 멕시코(-30%)등으로 격감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표학길(2016) 및 Pyo(2017, forthcoming)에서는 이와 같이 노동소득비율의 하락이 2008년 이후 ILO를 중심으로 제시된 소득주도성장이론의 실증적 배경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Milanovic(2013)에 의하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8~2008년의 기간 동안 분위별 세계소득분포와 실질소득증가율 간에는 일종의 ‘elephant curve’가 식별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세계소득순위의 상위 60~80%의 분위기를 차지한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실질소득증가율의 급속한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것이 영국에서의 ‘Brexit 현상’과 미국에서의 ‘Trump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종의 중산층주도의 정치경제적 이반현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3. 세계 가구소득 분포구조의 변화

Lakner and Milanovic(2015)은 세계패널소득분포(LM-WPID) 데이터(130개국의 가구소득을 1988~2008년의 기간 동안 조사)를 이용하여 세계화(globalization)가 전 세계 가구소득의 분포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1988년을 세계화가 시작된 원년(元年)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1988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체제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까지 20년간의 기간 동안 세계 가구소득의 분포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은 Milanovic(2013)에서 옮겨온 것으로 전 세계 가구를 최저소득그룹(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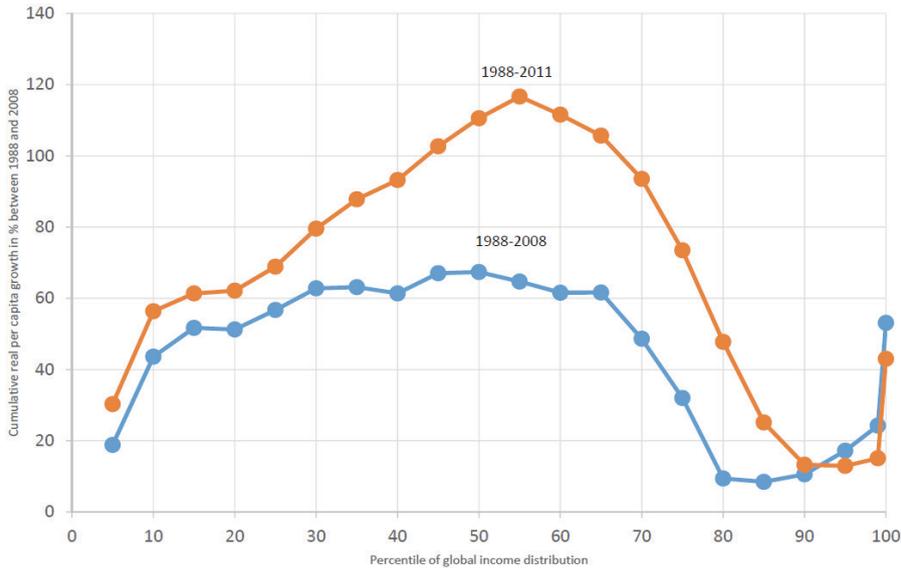


자료: Milanovic(2013)

〈그림 1〉 전 세계 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득 변화, 1988~2008년

분위)에서 최고소득그룹(10분위)까지 x-축에 나열하였고 y-축에는 각 분위별 평균실질소득의 변화율을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의 모양이 코끼리의 코를 닮았다고 해서 ‘elephant curve’로 알려지게 되었다. Corlett(2016)의 해석에 의하면 이 그림은 ‘세계화’의 결과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 (1) ‘세계화’의 수혜그룹: 중국과 같은 지구상의 중간 소득그룹과 최상위 소득 1% 그룹(‘plutocrats’)의 소득의 증가율이 60~80%의 수준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 그림은 같은 기간 동안 ‘세계화’가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24% 정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 (2) 선진국 가구소득의 정체: 세계 가구소득의 상위 80%에 해당하는 그룹은 1988-2008년의 20년간 소득이 가장 심하게 정체되었던 그룹이다. 이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부자나라들의 ‘중하위계급(lower middle class)’이다. 이와 같이 부유한 선진국들의 ‘중하위 소득’그룹이 세계화의 최대 피해 그룹이라는 것이 이 그림이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 (3) 선진국 중산층 소득 정체의 불가피성(inevitability): 이 그림은 가구소득통계가 집계가능한 130개국의 실질소득을 상당한 기간(1988~2008년) 동안 누적시킨 것이기에 때문에 세계화는 선진국들의 근로계층과 중간소득계층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불가피한 경향이 있



자료: Milanovic(2016)

〈그림 2〉 전 세계 가구의 실질소득 변화, 1988~2008년, 1988~2011년(2011년 PPP 기준)

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4) 선진 국가 간의 이질성: Corlett(2016)에 의하면 선진국의 실질소득데이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동구권 국가들의 소득정체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저소득국가들의 인구증가가 ‘elephant curve’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하였다.

Milanovic(2016)가 1988~2011년의 기간을 2011년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index)로 조정하여 연장 추계한 결과를 〈그림 2〉에 인용하였다. 〈그림 2〉도 〈그림 1〉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득분포 50~60% 구간의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의 누적분포율의 정점이 62%에서 120% 수준으로 높아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 50~60% 소득구간 그룹과 90% 소득구간 그룹(10%의 실질소득증가율) 간의 실질소득 증가율의 격차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4. 우리나라의 실질소득-소비분포 구조의 변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실질소득분포구조의 변화를 추적한 Milanovic(2016)와

Corlett(2016)의 연구결과들은 최근의 ‘Brexit 현상’, ‘Trump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 많이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Corlett(201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자료가 개별 국가의 실질소득분포구조의 변화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자료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8), 도시가계연보와 통계청 KOSIS의 가계동향조사(2008, 2010)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원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득 10분위별 평균 명목가계소득과 평균 명목가계소비액을 구하였다. 실질소득 및 실질소비액은 2008년을 기준년도로 한 통계청의 전국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환가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우리나라의 실질소득 분포구조의 1998~2008년의 기간 동안의 소득분위별 변화는 <표 1>과 <그림 3>과 같다. Milanovic(2013)가 고려한 것과 같은 기간(1988~2008년) 동안의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증가율을 보면 대체로 중상위 소득계층인 5-7분위 계층의 실질소득 증가 배수(약 1.5배)가 가장 높았고 2분위 계층(약 1.26배)과 10분위 계층(약 1.08배)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표 1> 소득분위별 소득과 소비액⁽²⁾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원)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원)		
	1988년	2008년	2015년	1988년	2008년	2015년
1분위	206,055	1,163,688	1,504,002	501,815	1,163,688	1,294,625
2분위	328,810	1,813,713	2,402,619	800,765	1,813,713	2,068,143
3분위	397,430	2,282,769	2,992,398	967,879	2,282,769	2,575,817
4분위	457,357	2,725,852	3,555,053	1,113,822	2,725,852	3,060,143
5분위	519,396	3,194,016	4,022,303	1,264,908	3,194,016	3,462,345
6분위	591,851	3,617,353	4,481,602	1,441,361	3,617,353	3,857,704
7분위	677,545	4,106,620	5,072,075	1,650,055	4,106,620	4,365,975
8분위	794,076	4,762,974	5,784,280	1,933,848	4,762,974	4,979,032
9분위	992,057	5,731,758	6,894,715	2,416,000	5,731,758	5,934,880
10분위	1,608,064	8,155,871	9,839,228	3,916,189	8,155,871	8,469,478

(2) 소득/소비액은 전국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소비지출액임. 실질수치는 통계청의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명목수치를 2008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임.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한 값임.

	소득분위별 명목소비(원)			소득분위별 실질소비(원)		
	1988년	2008년	2015년	1988년	2008년	2015년
1분위	235,588	1,133,604	1,334,863	573,738	1,133,604	1,149,032
2분위	274,788	1,500,177	1,721,498	669,203	1,500,177	1,481,843
3분위	308,613	1,731,927	2,091,037	751,579	1,731,927	1,799,937
4분위	335,861	1,938,807	2,207,666	817,937	1,938,807	1,900,330
5분위	376,781	2,075,524	2,587,798	917,591	2,075,524	2,227,542
6분위	414,758	2,377,986	2,799,857	1,010,078	2,377,986	2,410,080
7분위	464,524	2,597,914	3,152,390	1,131,276	2,597,914	2,713,536
8분위	526,904	2,801,950	3,222,463	1,283,192	2,801,950	2,773,854
9분위	637,106	3,055,645	3,677,646	1,551,572	3,055,645	3,165,669
10분위	964,206	3,863,071	4,427,607	2,348,173	3,863,071	3,811,226

	소득분위별 명목저축(원)			소득분위별 실질저축(원)		
	1988년	2008년	2015년	1988년	2008년	2015년
1분위	-29,533	30,084	169,139	-71,923	30,084	145,593
2분위	54,022	313,536	681,121	131,562	313,536	586,300
3분위	88,817	550,842	901,361	216,300	550,842	775,880
4분위	121,496	787,045	1,347,387	295,885	787,045	1,159,813
5분위	142,615	1,118,492	1,434,505	347,317	1,118,492	1,234,803
6분위	177,093	1,239,367	1,681,745	431,282	1,239,367	1,447,624
7분위	213,021	1,508,706	1,919,685	518,779	1,508,706	1,652,440
8분위	267,172	1,961,024	2,561,817	650,656	1,961,024	2,205,178
9분위	354,951	2,676,113	3,217,069	864,428	2,676,113	2,769,211
10분위	643,858	4,292,800	5,411,621	1,568,016	4,292,800	4,658,252

자료: 1) 2008, 2015년 자료: KOSIS(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11.28

2) 1988년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 『도시가계연보』

주목할 것은 소득 최하위계층인 1분위 계층의 실질소득 증가배수(약 1.32배, 연평균증가율: 4.7%)가 차하위계층인 2분위 계층의 실질소득 증가배수(약 1.26배, 연평균증가율: 4.5%)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는 1988~2008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1997년에 발생한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대체적으로 중·상위(5-7분위) 계층의 실질소득이 타 소득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2〉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소비 증가배수와 연평균성장률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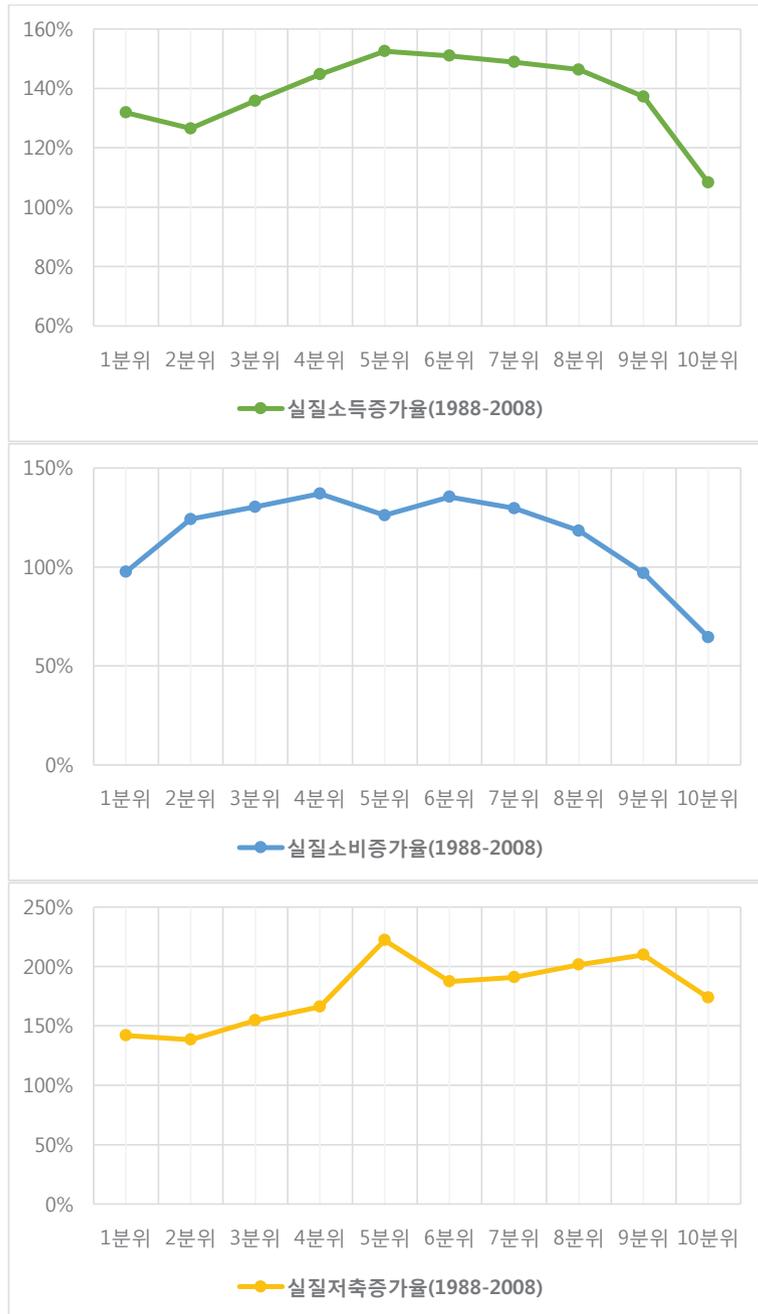
	1988~2008년					
	실질소득 증가배수	연평균성장률, %	실질소비 증가배수	연평균성장률, %	실질저축 증가배수	연평균성장률, %
1분위	1.32	4.7	0.98	3.7	1.42	11.6
2분위	1.26	4.5	1.24	4.5	1.38	7.1
3분위	1.36	4.6	1.30	4.6	1.55	6.0
4분위	1.45	4.8	1.37	4.7	1.66	6.1
5분위	1.53	4.9	1.26	4.5	2.22	7.0
6분위	1.51	4.9	1.35	4.8	1.87	6.3
7분위	1.49	4.8	1.30	4.5	1.91	6.0
8분위	1.46	4.8	1.18	4.3	2.01	6.0
9분위	1.37	4.5	0.97	3.6	2.10	6.0
10분위	1.08	3.9	0.65	2.7	1.74	5.6
	2008~2015년					
	실질소득 증가율	연평균성장률, %	실질소비 증가율	연평균성장률, %	실질저축 증가율	연평균성장률, %
1분위	11.25%	1.6	1.36%	0.3	383.95%	32.4
2분위	14.03%	1.9	-1.22%	-0.1	87.00%	10.0
3분위	12.84%	1.8	3.93%	0.6	40.85%	5.1
4분위	12.26%	1.7	-1.98%	-0.2	47.36%	6.2
5분위	8.40%	1.2	7.32%	1.1	10.40%	1.9
6분위	6.64%	0.9	1.35%	0.3	16.80%	2.5
7분위	6.32%	0.9	4.45%	0.7	9.53%	1.4
8분위	4.54%	0.7	-1.00%	-0.1	12.45%	1.9
9분위	3.54%	0.5	3.60%	0.5	3.48%	0.8
10분위	3.85%	0.6	-1.34%	-0.1	8.51%	1.3

자료: 1) 1990~2008년 자료: KOSIS(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11. 28

2) 1988년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 『도시가계연보』

3) 1989년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 『도시가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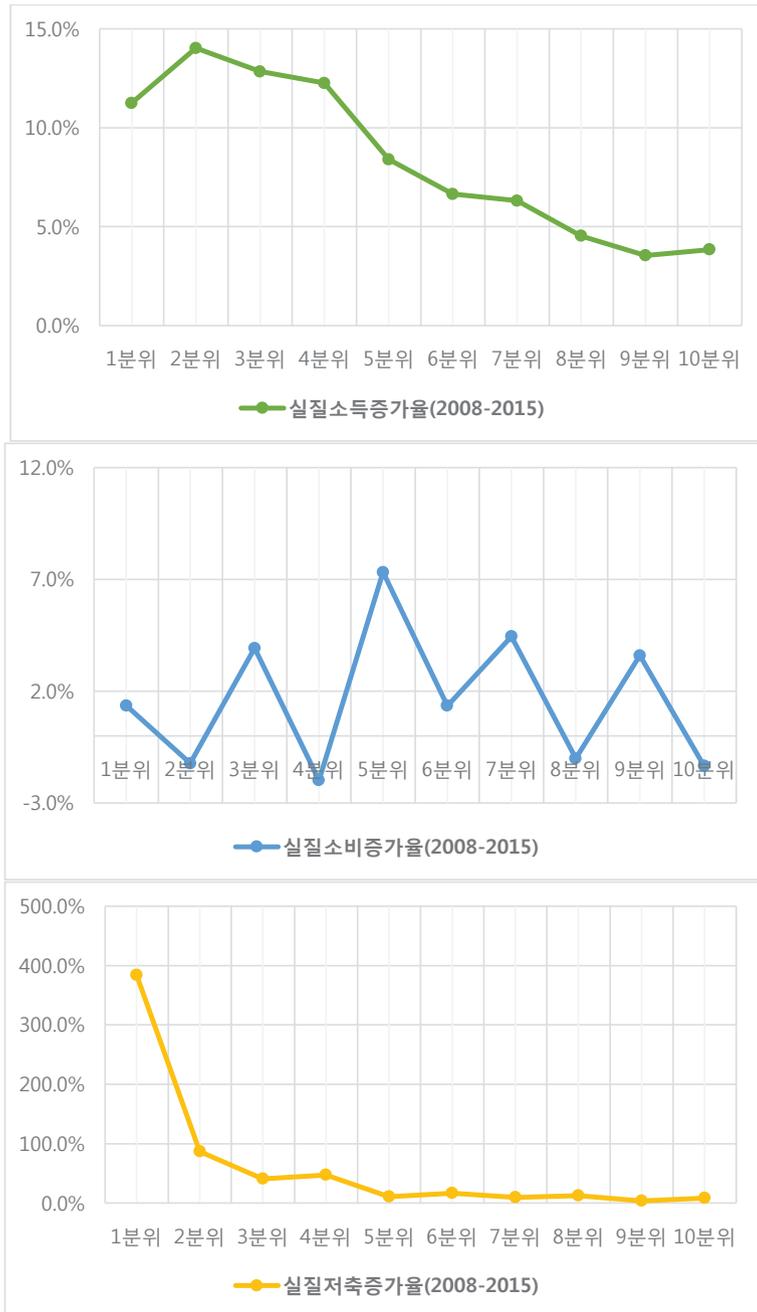
(3) 소득/소비액은 전국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소비지출액임. 실질수치는 통계청의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명목수치를 2008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임.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한 값임.



자료: 1) 2008년 자료: KOSIS(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11. 28

2) 1988년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 『도시가계연보』

〈그림 3〉 우리나라의 소득분위별 가계소득-소비 변화(1988~2008년)



자료: KOSIS(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11. 28

〈그림 4〉 우리나라의 소득분위별 가계소득-소비 변화(2008~2015년)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실질소득분포구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2015년의 기간 동안 추계된 소득분위별 평균실질소득 자료를 보면 소득 2분위의 소득증가율이 14%로 가장 높았고 소득 9분위는 3.5%로 가장 낮았다. 일종의 ‘elephant curve’가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상위소득계층(8-10분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추계되며 이와 같은 ‘elephant curve’적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현상은 적어도 2008년 이후에는 실질소득증가율의 측면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적 고찰

1988년을 ‘세계화’의 원년(元年)이라고 보았을 때 이후 20-30년의 기간 동안 세계 경제는 가계소득분포 구조상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Piketty(2014)는 전세계적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세습자본주의화 되어가는 것을 우려하였다. Pyo(2016)에서 살펴본 대로 부유세의 신설과 세율의 국제적인 조정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Milanovic(2016)는 1988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 세계 가구소득의 소득분위별 분포구조가 크게 변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상위소득그룹(세계소득 분포상의 중위소득그룹)의 실질소득증가율(100~120%)이 가장 높은 반면, 선진국의 중·하위 소득그룹(세계소득분포상의 상위소득그룹)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elephant curve’적 현상을 원용하여 최근에 영국에서 벌어진 ‘Brexit 현상’과 미국 대선에서의 ‘Trump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분위별 평균 실질소득에서 평균 실질소비액을 차감하여 구한 실질저축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상위계층 전부(5-10분위)가 17% 미만의 증가율을 시현한 반면 1분위(약 380%) 및 2분위(87%) 등 하위소득계층의 실질저축액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해본 1988~2008년 및 2008~2015년 두 기간의 실질소득구조의 변화를 보면 세계금융위기(200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elephant curve’ 현상이 포착되었다. 1988~2008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소득 5-7분위 그룹이 2008~2015년의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질소득증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상위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중산층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소비를 주도해온 중상위소득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6380, (02)-880-2093

E-mail: pyohk@plaza.snu.ac.kr, hakkpyo@gmail.com

참고문헌

- 표학길(2015):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케티가설의 검증,” 『한국경제포럼』, **8**, **1**, 45-81.
- _____ (2015): “피케티(Piketty) 가설과 성장론의 최근 동향,” 『경제논집』, **54**, **2**, 483-508.
- _____ (2016):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한국경제의 분석』, **22**, **2**, 103-151.
- Corlett, Adam(2016): *Examining an Elephant: Globalisation and the Lower Middle Class of the Rich World*, London, Resolution Foundation.
- Lakner, C., and Milanovic, B.(2015):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Revista de Economía Institucional*, **17**, **32**, 71-128.
- Milanovic, B.(2013): “Global Income Inequality by the Numbers: in History and Now,” *World Bank*, **4**, **2**.
- _____ (2016): “The Greatest Reshuffle of Individual Income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Vox*, July, 1.
- Onaran, Ö., and Galanis, G.(2013):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A Global Model,” In *Wage-led Growth*,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71-99.

Piketty, T.(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yo, Hak K.(2017, forthcoming): “Chapter 26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ovell C.A.K., R. Sickles and E.G. Tatje (eds.), *Oxford Handbook of Productivity*, Oxford University Press.